

現代 女子帽子에 관한 研究

金 榮 子

<目 次>	
I. 序 論	III. 帽子 着用에 對한 實態調査
II. 開化期, 現代의 帽子	IV. 結 論

I. 서 론

옷은 하나의 물체에 불과한 것이나 인간에게 입혀져서 사람과 같이 숨을 쉬고 있다는 느낌을 보는 사람에게 불러 일으킨다.

이것은 의복이 기능적인 역할뿐 아니라 장식적인 가치로서 보다 능동적인 미의 역할과 심미적인 만족을 주며 더 나아가 개개인의 태도와 감정을 표현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모자는 이러한 의복의 외관상의 통일미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의복 조화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자는 그 시대 의복의 형태에 따라 실용적으로 또는 상징의 의미로 또는 조형적인 미적 요소로서 변천해 왔다.

한국에서는 옛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지칭받을 만큼 의관을 무엇보다 소중히 생각했다. 고유복식인 한복에도 건(巾), 모(帽), 관(冠) 등의 진행과정을 통해 각 시대마다 두발의 처리에 알맞게 다양한 형태로 착용되었다.

여자의 두발은 결발로 처리하였으며 두식으로 삼국시대에는 수건을 쓰기도 하였으며 고려기에 청상립을 쓰고 다니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기후나 계절에 따라 여러 형태가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의 아얌이나 조바위는 보온뿐 아니라 두발 형태에 알맞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독특한 아름다움도 있다.

이러한 한복의 모자는 서구화된 후에 너울이 나 장옷을 벗어 버리고 서구식 모자를 착용하여 복식에 혁명적인 것이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어 갔다. 이 모자의 수용기는 일제의 침략시대였던 만큼 일본에서 일단 여과된 서구의 모자 형태가 우리 땅에서도 착용되었다고 본다.

본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모자착용에 대한 소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고 이와 더불어 우리 나라에 모자가 도입 착용되었던 과정을 자료를 모아 정리해 보려한다. 이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모자착용을 위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며 우리 기호에 맞는 모자 디자인을 하는데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더우기 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기초 보고에 불과한 정도로 그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연구가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의 자료는 당시에 생존해 계시던 분의 도움으로 사진과 신문, 잡지 문헌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모자 제작을 하셨던 분들의 고증을 참고로 하였음을 밝혀 둔다.

II. 開化期, 現代의 帽子

1. 社會的 背景

우선 開化期의 女子帽子 着用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開化期의 社會相을 韓日合邦이 되었던 1910년까지 살펴 보기로 한다.

開化란 1880年代 朝鮮의 政治, 經濟, 文化, 全般을 支配한 思想 혹은 運動을 나타내는 標語로서 開明化 혹은 文明化 즉 先進外國의 文化를 받아들여 在來의 것과는 다른 文化를 創造함을 가리킨 것이었다.¹⁾

오랫동안 쇠국정책으로 外國과의 交涉을 拒否하여 오던 朝鮮은 1876年 日本과의 丙子修好條約을 契機로 歐美列強國들과도 門戶를 開放함으로써 傳統的인 朝鮮社會가 近代社會로 發展하게 되는 重要한 歷史的 契機가 되었으나²⁾ 高宗 19年(1882)에 壬午軍亂이 發生했고, 高宗 32년에는 甲午更張이 이룩되어 陋習타파를 목적으로 再婚이 인정되었으며 兩班과 常民의 差別폐지, 衣服制度의 간소화 등 社會改革이 일어났다. 그러나 外勢에 대한 반발 勢道政治와 黨爭, 稅政의 문란으로 社會相은 극히 혼란스러웠으며 이러한 것이 原因이 되어 1894年 東學亂이 發生했다.

이 후 西洋의 民主思想에 눈뜬 知識層은 言論機關을 통해 不正과 腐敗에 對抗해 투쟁을 하게 되었으며, 신문사가 세워져 演說과 論說로 民衆을 계몽하였다. 또한 강화조약 이후 1882年 이래 美國, 英國,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과 차례로 修好條約을 締結하게 되어 新敎의 선교사들이 入國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新敎育이 開化思想家들에 의해 受容되기에 이르렀다.³⁾

우리나라에서는 그때까지 女性을 男性의 隸屬物으로서만 存在했을 뿐 人格體로서의 女性은 無視되어 왔다. 그러나 이때부터 女性社會에서도 階級の 打破와 女性의 地位가 向上되고 開放되기 始作하면서 부터 門밖 出入을 하게 되었다. 高宗 23年(1886) 基督教의 傳來로 女性들에게도 開化에 대한 눈이 뜨이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女性敎育機關으로 梨花學堂이 세워져 女性의 開化가 시작되었다.⁴⁾

이러한 開化思想은 新生活運動과 近代社會로의 發展하는 救國運動의 一環으로서 우리나라 女

性의 해방과 近代化로 이끌어 나가는 原動力이 되었다.

2. 開化期의 女子 帽子

우리나라는 古來로부터 東方禮儀之國으로 指稱받을 만큼 衣冠을 무엇보다 所重히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도 所重히 여기던 衣冠도 時代의 變遷에 따라 차차 變化되어감을 막을 수 없었다. 高宗 32年(1895)에 斷髮令이 公布되매 마침내 朝鮮의 衣冠制度에 一大變革을 가져왔다.

고려時代부터 女用 등으로 얼굴과 머리를 감추어온 女性들은 우선 그녀들을 無力한 女人으로 만들어 왔던 얼굴과 머리를 먼저 해방시키기 위하여 外出할 때 꼭 써야 했던 장옷(쓰개치마)을 벗기 시작했다.⁵⁾ 1900年代부터 女學生 사이에서 맨먼저 벗기 시작하여 1910年頃에는 本格的으로 벗게 되었다.

이때 장옷의 代用으로 考案된 것으로 양산 구실을 하는 검정 우산을 쓰고 다녔다. 이것은 남이 보아서도 안되고 남에게 보여져서도 안되는 古來의 모럴을 지켜 나가기 위한 手段으로 쓰개치마가 없어지는 過渡期的인 臨時 方便으로서의 道具였다.⁶⁾ 高宗 31年(1894) 甲午年에 舊制度를 폐지하고 萬民平等과 新敎 信奉의 自由를 허락하니 이로서 女子가 문밖 出入을 하게 되었으며 西洋 宣敎師, 傳道師, 婦人들과도 접촉하게 되어 西洋女子 衣服의 편리함을 보고 模倣하여 衣服의 變遷이 시작되었다.⁷⁾

차츰 開化에 눈뜬 新女性들의 社會進出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新聞에서도 論說란에 女服改良에 대한 제의와 主張이 자주 記載되었다.

1906年 5月 30日 제국신문 논설란

“지금 세계의 인정물되가 크게 변하야 녀즈사 회도 따라서 변하느고로 이전에 듯고 보지 못 하던 부인회가 성진다. 녀학교가 성진다”—中略—

“외국에 유학하야 학문을 비와 의식이 되야

1) 이광린, 「한국개화사연구」(서울: 일조각, 1969), pp. 20~21.

2) 성신여자사범대학 연구논문집, 제 3집, p. 67.

3) 鄭忠良, 「梨花八十年史」(서울: 梨大出版部, 1967), p. 29.

4) 김운하, 「세상 달라졌다(복식의 章①)」, 조선일보, 1972. 4月.

5) 이규태, 「개화백경」四(서울: 新太陽社, 1971), p. 39.

6) 여성동아, 1967. 11號, p. 149.

7) 이화여자사범대학교 편찬위원회(한국여성사), 이대출판국, 1972, p. 246.

병인을 치료하는 부인도 있고 또 보통 학문을 비와 교수의 자격된 이도 있으며 정부에서 의복제도 반포하기를 기뻐할수 없어서 혹 일본 여자의 복식하는 이도 있고 혹 양복한 부인도 있스니” —後略—

또한 다음과 같은 記事도 記載되어 있다.

1906年 6月 1日 제국신문 논설란

녀자들이 전갓치 가두어서 출입을 막을수 없는 거시 즈연 녀자사회가 발동되야 녀자마다 장옷이나 치마등류를 쓰지 않고 단이 깃다는 녀자가 무슈하고 또 일복이나 양복을 낚고 단이는 이도 있고” —後略—

以上과 같은 기사로 보아 洋裝과 日本服을 着用한 여성들이 눈에 띄고 장옷을 벗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이 衣服을 改良할 것을 제의했다.

1907年 6月 19日 제국신문 논설란

“〈부인의 의복을 기량홀일 탄핵성〉

근리 우리나라 부인 사회의 풍기가 크게 변하여 남자와 교제도 하며 연회에도 참여하며 연설마당에 방청도 하며 여자교육회나 진명 부인회에도 가며” —中略—

“부인이 출입할 때에 교군 타는것도 불가하며 장옷이나 치마를 써서 광명한 일월아래 얼굴을 가리오는 것도 불가하며 양복이나 일복을 낚는 것도 불가하고 의복을 개량하여 거리단녀도 관계치 안코 혹시 인력거를 타도 관계 안케 함이 가홀지라” —中略—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머리는 이마를 지우고 밀과 기름으로 붓쳐서 쪽지는 풍습을 폐하고 서양 부인의 머리를 본받아 우흐로 치그어 올리고 모즈를 써야 홀터이니 모즈는 우리나라에서 전하여 오는 것이 엷는즉 부득불 식로 마련하여야 홀터인데 이것이 제일 극난한즉 아주 서양 부인의 모즈를 쓰되 얼굴 가리오는 그물을 버릴지며” —後略—

이와 같이 帽子는 쓰개치마를 벗기 시작하면서부터 쓰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모자의 앞에 망으로 가리는 형태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사는 모자 제작이

시작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1906年 7月 27日 제국신문 〈잡모란〉

〈女帽新制〉

“전종순 리홍리씨등이 녀자의 쓰는 익음을 신발명으로 제조하여 발미홀츠로 녀모 제조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농상공부에 청원하여 전민 권을 인허하였는디” —後略—

이와 같이 衣服改良의 要求와 함께 初期의 洋裝은 上流社會女性, 留學生, 海外見聞을 마치고 귀국한 高級官吏의 婦人등 극히 一部 女性에 局限되었다.

이때 유럽에서는 帽子의 着用이 正裝의 禮儀로서 外出할 때는 반드시 쓰고 다녀야 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유럽식 洋裝을 그대로 導入하여 입었던 만큼 帽子도 洋裝을 했을 때는 必히 着用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洋裝을 착용했던 것을 살펴봄으로써 그 當時 帽子 着用을 考察하는데 直接的인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 나라 최초의 양장미인은 1899年 金閨晶의 딸이며 尹致旼의 婦人 尹高麗이다. [사진 1] 留學 갔다온 男便의 勸誘로 洋裝을 한 것이 驚異的인 女性으로 各광을 받았다.⁸⁾ 또한 進明女學校 女教師 黃에멜라는 自己의 이름까지 西洋式으로 고치고 洋裝에 洋傘을 들고 나와 많은 구경꾼들의 好奇心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단발령 以後 年代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高宗皇后인 엄비 [사진 2]도 양장을 하고 모자를 쓰고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이 있다.



[사진 1] 개화기 모자를 착용한 윤고려



[사진 2] 양장차림의 엄비

우리 나라에서 最初로 女醫師가 된 박 에스터는 1900년에 4年前 美國 볼티모어市의 女子醫科大學으로 유학을 가서 귀국할 때 쓰고온 카노체

8) 이규태, op. cit., p. 32.

(Canotier)와 우아하고 儉素한 양장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⁹⁾

淑明女學校는 開校 이듬해인 1907年 여름에는 洋裝制服을 校服으로 定하고 校帽를 썼다. 이制服은 現在 간호원이 입는 옷과 비슷한 것으로 英國制 메린스실로 짠 자주빛 원피스이며 모자는 분홍색 안을 든 본넷(Bonnet)을 썼다.¹⁰⁾ 이것은 이 時代流行의 最尖端을 걷는 것이며 너무 異質的이어서 社會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3年만에 韓日합병 이후 다시 치마 저고리로 돌아갔다.

이때 벌써 最尖端의 새로운 女性의 헤어스타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907年 梨花學堂에서 공부를 마치고 東京으로 유학갔던 崔活蘭이 돌아올 때 東京서 流行하던 히사시가미¹¹⁾를 하고 귀국하였다. 그후 이 스타일은 그 당시 開化된 女性 사이에서 流行했다.¹²⁾ 그러나 1910年 韓日合邦으로 因해 開化와 함께 導入된 洋裝은 잠시 주춤했다.

이와 같이 양장의 始作과 함께 帽子着用은 當時 극히 一部層에 지나지 않았으며 大部分 外國에서 귀국하는 사람들에 의해 도입된 것을 착용하였고 그 스타일 역시, 西洋女子帽형인 19世紀後半에 착용하던 당시 유럽에서 流行하는 貴族들이 썼던 카프린과 카노체를 썼다. [사진 3, 4]



[사진 3] 1910年代 카노체를 쓴 여인들



[사진 4] 1908年 서양여인의 모자착용

3. 解放前의 帽子(1910~1945)

日本은 1910年 韓日合併후 끈질긴 植民政策을

써 왔지만 韓國民族으로부터 獨立, 解放의 뜻을 빼앗지는 못했다.

그들의 갖은 壓制 밑에서도 獨立運動은 꾸준히 계속되었다.

1919年の 3.1독립운동을 中心으로 하여 民族運動은 國內에선 怠業 혹은 地下運動으로 이어졌다. 日本의 軍國主義가 大陸으로 번지던 1937年부터 45년까지의 韓國은 모든 것이 日本의 戰爭遂行政策 밑에 있었으며 政治, 經濟, 文化 등의 모든 分野에서 더욱 搾取당했으며, 日本의 병참 기지화 해 갔다.

1939年 創氏改名, 1940年 東亞日報, 朝鮮日報의 강제폐간, 1942年 朝鮮語學會의 탄압, 1944年 징병제도 실시 등으로 實로 어수선하고 국권을 잃은 비참한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1920年代에는 韓國 女性運動史上 多様な 時代였다. 女性들은 民族抗爭隊列에서 救國運動에 앞장 섰으며 그들의 地位向上을 도모하는 反面, 本格的인 文化, 新生活運動을 廣範圍하게 展開시켰다. 그리하여 新敎育을 받은 여성들은 全國으로 계몽강연을 다니면서 新生活를 鼓吹시켰고 服飾에 관한 것으로 쓰개치마를 벗고 衣服을 改良할 것을 勸했다.

1910년부터 日本 皇室과 朝鮮 총독부의 주선으로 일본 관광 시찰단을 구성하여 渡日, 그當時 日本에서 流行하던 西歐式 洋裝을 보고 돌아온 女性들과 日本, 美國 等地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女性들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帽子의 着用은 눈에 띄게 많아지기 시작했다.

1915年 梨花學堂에서 한국 최초로 탄생한 大學 四角帽子는 女性의 洋裝帽子의 流行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20年代 벌써 日本에서 미용공부를 하고 돌아온 한국의 첫 미용사 吳葉舟가 和信百貨店에서 미장원을 開業하였으며¹³⁾ 이때에 斷髮美人모던(毛斷)결이 생겨났다. [사진 5] 이와 같이 짧아진 머리와 퍼머 머리형의 혁명에서 洋裝帽

9) 유희경, 한국여성복식의 연구, p. 614.

10) 숙명, 五十年史, 1956.

11) 一名 「챙머리」로서 日本에서 1900年初에 新女性 사이에서 流行한 머리로서 머리둘레를 챙같이 틀어 올린것.

12) 유희경, op. cit., p. 191.

13) 「세상 달라졌다」 조선일보, 1972, 4月 20日.

靑木莫天의 「洋髮의 歷史」에서 昭和 時代의 머리모양을 말하기를 「毛斷嬢」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짧게 컷트한 것으로, 구미의 영향으로서 이러한 모습은 銀座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5] 단발에 모자 쓴 여인



[사진 6] 1918년경의 모자 영화배우 복혜숙씨

1934年 11月 21日 東亞日報<가정란>의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은 양장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들 눈에 익숙해 졌고 풍부해 졌습니다. 즉 대량생산으로 진출된 양장은 어떤 가정에서든지 가족 전체는 아니나 반수 이상은 어찌든 양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後略—

以上과 같이 양장이 일반인에게 普及되었으며 양재강습이 열리고 外國에서 流行하고 있는 뉴모드의 帽子를 소개하는 등으로 해서 모자는 점차 일반여성에게까지 착용하게 되었다.



[사진 7] 1922년경 복혜숙씨의 모자를 착용한 모습

[사진 7] 1920년대의 연극배우

[사진 8] 1920년대 서양여자의 차림



[사진 9] 1930년대 모자



[사진 10] 1930년대 모자를 착용한 영화배우 복혜숙씨



[사진 11] 1930년대 모자를 착용한 여인



[사진 12] 1936년 모자를 착용한 서양여인

자의 流行은 多樣해졌다. [사진 6, 7, 8]

1930년대 洋裝은 점차 地方에까지 보급이 되기 시작하여 知識女性이면 대부분 양장을 할 정도로 一般化되었다. [사진 9, 10, 11, 12]

이때 日帝는 우리民族의 固有風俗을 없애려는 方法으로 韓服着用을 妨害하였으며 이러한 手段으로서 女學校의 校服이 거의 양장으로 改正되었다.

1931年 다시 制定된 淑明校服은 흰 부라우스에 감색 스커트가 하복이고 자주색 리본을 단 흰 帽子를 썼다. 冬期 校帽는 자주색 리본을 단 감색 카프린을 썼다.¹⁴⁾ 이화여자대학 의과대학 附屬病院의 前身이었던 保救女館看護員들도 이때 모두 토끄(toque) 모자를 썼다.¹⁵⁾

1936年 淑明 籠球團의 日本 遠征制覇로 因해 現代式 女性 스포츠 웨어가 등장했으며 各 女學校에서는 日本으로 수학여행을 갔다 오는 여학생들이 부라우스 스웨터, 스커트, 등산모자등을 구입하여 오매 이것은 一般女性에게까지 유행되었다.¹⁶⁾[사진 13, 14]



[사진 13] 1937년경의 모자 무용가 한영숙

[사진 14] 1940年 "Le Jardin des Modes" 서양여인의 모자착용

그러나 이러한 모자의 부흥은 40年代를 넘기 직전 제 2차 世界大戰의 勃發로 인해 受難期를 맞게 되었다. 日帝는 戰爭時에 女性服裝을 男性의 國民服과 같은 "몸빼"를 착용하도록 强要했다. 이러한 의복 차림으로는 복장에 대한 아름다움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게 되었던 것은 당연하였으며 모자 착용은 더욱 어려웠다.

이리하여 모자는 全盛期를 이루었던 30年代를 고비로 2次大戰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다.

4. 解放後의 帽子(1945~1983)

1950年代의 우리는 解放 直後의 紊亂한 狀態에서 차츰, 政治, 經濟·文化의 各部分에 秩序

가 잡혀 가고 다소 安定을 이루는 듯하더니 6.25 事變은 當하여 지극히 混亂한 社會 속에서 被服文化를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 塗炭에 빠진 國民經濟는 지금까지 家庭일만을 돌보는 것이 女性의 美德으로 되었던 觀念을 무너뜨리고 女性도 직접 職業戰線에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狀況 속에서 간편함과 機能的인 利點 때문에 洋裝은 衣生活에서 平常服으로의 位置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것은 우리 나라의 衣生活이 洋裝 中心으로 轉換하는 劃期的인 契機가 되었다.

解放以後 帽子 着用은 다시 나타나긴 했으나 解放前에 着用하던 것을 사용하는 程度였으며 不安定한 社會 속에서 心理的으로, 經濟的으로 帽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餘裕가 없었으므로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¹⁷⁾

지금까지 한국에서 착용되었던 帽子는 거의 外國製品에 依存하는 實情이었다. 그런데 日帝 末期부터 唯一하게 韓國人이 經營하던 대도 모자점은 男子 帽子만을 取扱해 오다가 1955年에는 종로 2가 Y.M.C.A 아래 층에 우리 손으로 女子 帽子店이 開店되었다. 주로 털실로 만든 토끄(Toque)形과 織物로 만든 베레(Beret), 터번(Turban), 카프린(Capeline)形을 製作했으나 演藝人과 外國 留學生등 一部층이 顧客이었다.¹⁸⁾

[사진 15, 16, 17]



[사진 15] 1956년경의 모자 [사진 16] 1958년경의 모자 [사진 17] 1959년경의 모자

50年代末에는 겨울 코트(Coat) 뒤에 달린 후드(hood)로서 帽子를 대신하였다.¹⁹⁾[사진 18] 1959

14) 속명五十年史, 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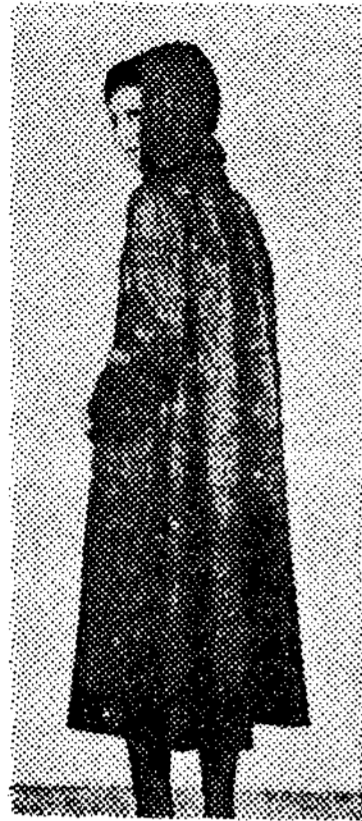
15) 남윤숙, 수도사대, 「한국여학생교복의 변천에 대한 역사적 고찰」, 1973, 석사학위논문,

16) 원영옥, 「우리나라 양장의 변천」(국민대학, 논문집, 1972), p.404.

17) 최경자, 「우리양장 25년」(주부생활 : 1970. 6. 10. (10)), p. 298.

18) 모자 디자이너 홍정표씨 회고담.

19) Ibid.



[사진 18]
1950년대에 유행한 후드 달린 홀레어 코트



[사진 19]
1960년경의 모자 작가 손장순

年度에 製作된 영화 「길은 멀어도」에서 여배우 김지미가 모자를 쓰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관객에게好感을 보여줌으로써 모자 착용이 好奇心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現在 流行의 새로운 影響을 끼치는 가장 重要한 것은 經濟的인 要因이며 이것은 또한 産業 design의 企業性을 近代化시키는 重要한 轉機를 가져다 준다.

1960年 初期 韓國의 政治, 經濟, 文化의 不安定은 4.19혁명, 5.16혁명 등 계속되는 大事件의 發生으로 因해 服飾界는 萎縮되었으며 따라서 帽子 着用은 衰退期가 계속 되었다. 그러나 매스컴 커뮤니케이션의 發達は 西歐의 流行을 迅速히 流入시켰고 소득의 증가에 따른 消費家計費의 증가는 被服費 支出을 증가시켜 流行 衣裳에 接할 機會를 더욱 자주 提供하였다.

國民 消費支出中 被服費가 차지하는 比率이 每年 向上되고 있음을 <表 1>에서 볼 수 있으며 經濟成長과 纖維工業 成長은 상승하고 있다.

1960年代 前期까지 中心이 되었던 綿 등의 自然纖維는 국가의 석유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발달한 합성섬유로 점차 代替되어 갔으며 1960年代末 以後는 染色 및 加工技術의 發達로 의복 재료가 전반적으로 低廉하고 多樣해져 새롭고 人氣있는 衣裳 素材를 提供하였다.²⁰⁾

이와 같이 풍부해진 의상 소재는 帽子에도 影響이 미쳐 이제까지 악세사리 部分에서도 取扱

<表 1> 全都市 家口當 月平均 家計收支

	家口當口 所得(원)	費用支出(원)			係數 엔겔수	
		食料品	住居被服	엔겔수		
1970	5.34	31,770	11,480	5,150	2,980	40.6
1971	5.28	37,660	13,460	5,950	3,240	41.4
1972	5.27	43,120	15,020	6,720	3,340	41.3
1973	5.25	45,850	16,040	7,260	3,660	41.4
1974	5.21	53,710	20,800	8,150	3,980	44.2

資料 : EPB, 韓國統計月報, 1975. 3.

되지 않을 만큼 認識되지 못하고 있던 것이 60年代 들어서서 비로소 악세사리로서 한 部分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1961年 정부는 帽子의 輸入을 禁止시켜 완전히 國內生産으로 帽子의 消費는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全國적으로 展開된 新生活運動은 女大生들에게 양산 使用을 禁止하므로 그 대신 밀짚 모자가 많이 出現했다.

이때의 帽子 쓴 모습을 表現한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62年 4月 <악세사리의 멋> 정애라, 여원.

“그 잘난 밀짚모자를 쓰고도 의식 과잉으로 머리가 무거운 세라 옆도 못보고 주저 주저 걸어가는 양이 보기 흉하다.”

이와 같이 對象을 意識하는 心理的인 태도로 因해 着用者의 범위는 넓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모자 착용자는 증가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은 記事에서 알 수 있다.

1963年 12月 <모자를 쓰는 센스와 멋> 정성원 <여원>

“요즘 우리나라 여성들의 衣生活이 눈에 띄게 양장으로 발전하였고 이에 따른 각종 악세사리도 세련되어 갔다. 또한 모자도 부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2~3年前부터 여름철에는 밀짚모자들이 성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모자는 實用的으로 애용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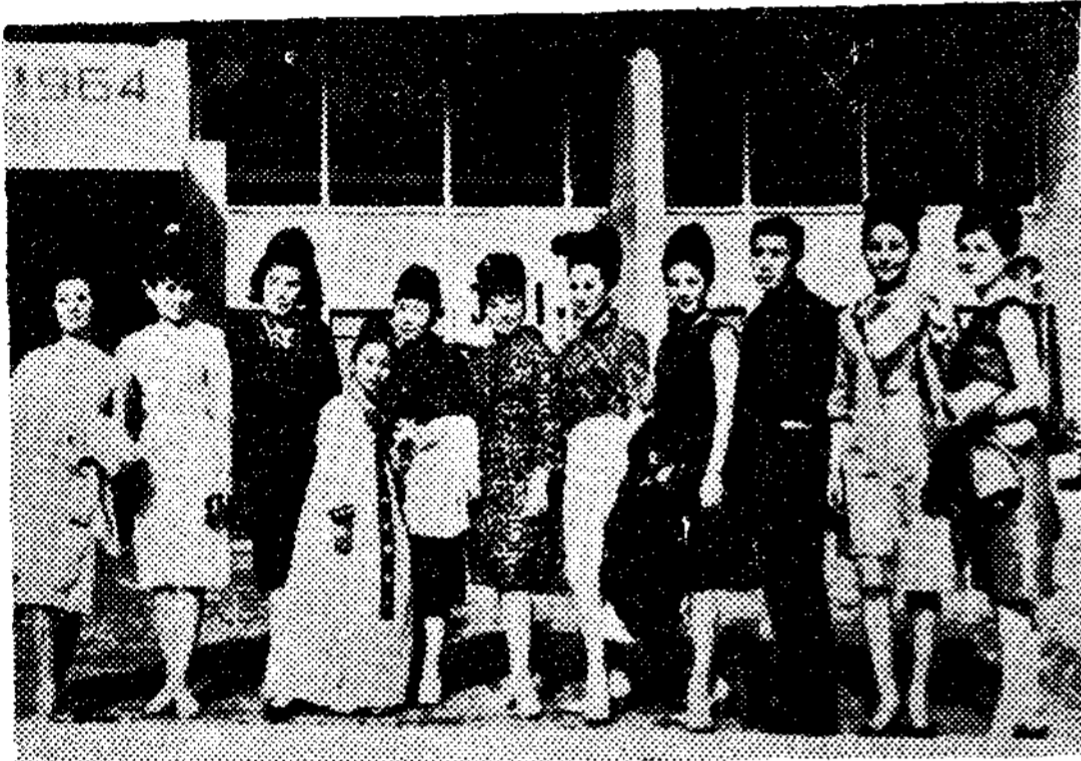
1960年代末 지금까지 製作者 爲主로 디자인된 既成 帽子만을 製作하던 狀態에서 消費者 嗜好와 要求대로 제작하는 過程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였으니 이것은 모자의 착용을 單純한 實用的인 價値뿐 아니라 個性美 있는 服裝美를 위해

20) 홍병숙, 「우리나라 여성의상의 유행에 관한 연구」, 서울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4.

착용하려는 좀더 한段階 發展된 현상이라고 보겠다.

모자점을 찾는 女性의 숫자가 놀랄만큼 많아지면서²¹⁾ 形態도 多樣해져 여러 가지 재료로 제작되었다.

모자의 형태는 머리 스타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1960년대 중반기에는 머리를 부풀리어 높게 만드는 형이 유행하였다. [사진 20] 이 머리형은 모자 착용이 용이하지 못한 것으로 모자가 유행할 수 없는 요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사진 20] 1964년경의 hair style
최경자씨의 패션 50년중에서

70年代 들어서 經濟的으로 第1次, 第2次, 第3次 經濟開發을 通하여 産業이 發達되었고 經濟成長을 나타내는 GNP가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國民所得이 증가하고 經濟的으로 좀더 安定된 生活水準으로 向上되었다.

이러한 經濟安定은 레저 붐을 助成하였고 各種 스포츠帽子, 등산모자가 쏟아져 나왔으며 大企業體에서는 유니폼에 모자를 착용하여 機能的인 效果와 企業體를 象徵하는 심볼의 역할을 했다. [사진 21, 22]

1970年代를 고비로 帽子着用은 세계 패션의 潮流가 復古風의 흐름을 타고 모자의 重要性이 다시 強調되면서 그 영향은 우리 나라에도 미치게 되었다.²²⁾

1972年 4月 신세계 백화점 3층에서 한국 최초의 帽子쇼가 開催되었다. 出品形은 100種으로 展示했다. 이 전시는 모자를 一般 大衆에게 浸



[사진 21] 1971년에 제작된 여러 가지 스포츠, 등산모자



[사진 22] 왼쪽 : 안내양의 유니폼의 모자
오른쪽 : 비서의 유니폼과 모자
엘레강스 1978년 9月號에서

[사진 23] 1979년에 유행된 여름모자

透시키려는 啓蒙的인 試圖였으며, 또한 帽子的 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였다.²³⁾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패션의 복고풍은 잠깐 머물고 유투파동과 세계경제의 불황, 유니섹스의 물결은 모자를 멀리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1978년 이후 여성 잡지에 실리는 패션의 모습은 대부분 모자를 착용한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두드러지게 모자가 의복의 앙상블을 이루는 복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디자이너들이 의복에서 모자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보겠으나 이에 대한 수용은 착용자의 기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급에 비하여 수용 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패션잡지로 시작한 「엘레강스」를 통하여 찾아본 모자의 착용은 비록 그것이 일반인의 착용 상태는 아니더라도 70년대 초기에 비하여 모자의 형태도 다종이며 상당수에 걸쳐 소개되었다.

21) 조세핀조, 「악세사리 백과」(여원 : 1965.8月), p. 413.

22) 여성복장 50年史(여성中央 : 1971.1月) p. .

23) 동아일보, 1972.4月 11日.

1979년 디자이너 허준(許俊)씨가 소개한 여름 모자는 카프린형의 모자를 소개하고 있으며 [사진 23] 이 외에도 크로쇠형과 베레는 가을과 겨울 의복에 매치시키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렇게 소개되는 패션 정보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밀착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유럽의 패션가 쇼에서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터번형의 머리를 두르는 형식의 두식이 자주 나오지만 우리의 생활에 도입은 쉽게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상적인 의복에 착용할 수 있는 실용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요즈음도 여름에는 태양을 가리는 크로쇠형을 흔히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대부분 방한이나 방서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겠다. 더우기 가능성을 위주로 하는 현대 복식에서 모자의 착용이 쉽게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III. 帽子着用에 대한 實態 調査

1. 調査 研究 目的

本 調査의 目的은 모자에 대한 여성들의 심리를 추출하여 모자착용에 대한 기호를 파악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기초가 되기를 위함이다. 또한 역사적인 자료로 남기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조사는 1976년에 실시한 것이나 참고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2. 調査 方法

1) 調査期間: 1976年 3月 1日~1976年 4月 30日

2) 調査對象者: 本 研究에서 對象으로 한 被驗者는 서울 市內에 居住하고 있는 女性을 對象으로 하였으며 연령별로 區分하여 20代에서 50代까지 680名을 標本抽出하였다.

3) 質問紙 作成 方法

A. 答紙 中에서 가장 적합한 것 하나를 선택하는 方法

B. 自由로운 意見을 숫자로 記述하는 自由反應法

4) 質問紙 배부 및 回收 方法

20代는 서울 市內 女子大學生과 職業女性에게 배부하였고 30代, 40代의 가정주부는 서울 市內 유치원과,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學

生의 어머니를 對象으로 하였으며 50代는 社會團體에 加入하고 있는 女性과 一般 家庭主婦에게 배부하여 回收하였다.

5) 資料 處理 方法

A. 答紙 하나만을 選擇하는 問項은 頻度를 百分率로 算出하였다.

B. 自由 反應法은 內容이 같은 숫자끼리 한 데 묶어 頻度를 百分率로 算出하였다.

3. 請查 對象者의 性格

〈表 1〉 연령 별 분포

연 령	수	%
20 代	300	44.1
30 代	200	29.4
40 代	100	14.6
50 代	80	11.7

〈表 2〉 직업 별 분포

직 업	수	%
학 생	202	29.7
사 무 원	50	7.3
교 사	17	2.5
서비스업	22	3.2
주 부	334	49.1
기 타	55	8

〈表 3〉 학 력 별 분포

학 력	수	%
국민학교졸업	43	6.3
중 학교졸업	51	7.5
고등학교졸업	186	27.3
대학교졸업	374	55.5
무 응 답	26	3.4

4. 結果 및 考察

〈表 4〉 [설문 13] 모자 착용에 대하여

선택항목	구분(%)	20代	30代	40代	50代	TO-TAL
평소에 용한다	4.6	4	2	11.2	5	
가끔 사용한다	39	30	23	28.7	30	
전혀 쓰지 않는다	20.6	30.5	34	38.7	31	
사용해본 때도 있다	36.3	35.5	39	16.5	31.8	
무 응 답			2	4.5		

N=680

〈表 5〉 [설문 14] 모자를 몇 개 소유하고 계십니까?

선택항목	구분(%)	20代	30代	40代	50代	TO-TAL
1 개		28	26.6	44.3	46.5	36.3
2 개		28	23	25.3	25.8	25.5
3 개		21.1	17.2	12.6	15.5	19
4 개		14.2	11.5	6.3	8.6	10
4개이상		7.7	11.5	11.4	3.4	8.5

N=508

〈表 6〉 [설문 15] 소유하고 계신 모자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선택항목	구분(%)	20代	30代	40代	50代	TO-TAL
직 물		37.4	38	42.3	26.2	35.4
털 실		45.4	34.7	34.7	44.2	39.7
모 피		5	8.1	5.9	13.1	8
가 죽		1.5	1.5	0.8	1.6	1.1
밀 짚		11.6	17.6	16.1	14.9	15

N=845

〈表 7〉 [설문 16] 모자를 가장 많이 착용하는 계절은?

선택항목	구분(%)	20代	30代	40代	50代	TO-TAL
봄		0.6	5	8	5	4.6
여 름		30	51	20	17.5	29.6
가 을		3.3	6.5	5	3.7	4.6
겨 울		61	37.5	40	61.2	50
무 응 답		5		27	12.5	

N=680

〈表 8〉 [설문 17] 모자를 착용하시는 목적은?

선택항목	구분(%)	20代	30代	40代	50代	TO-TAL
방한 방서용으로		66.6	55.5	72	62.5	64.1
의례적으로		1.6	3.5	1		1.5
습관이 되어서			1.5	1	5	1.8
매력적인 옷차림으로		26.6	16	8	1.2	11.4
무 응 답		10	23	18	31.2	

N=680

〈表 9〉 [설문 18] 모자의 색 선택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택항목	구분(%)	20代	30代	40代	50代	TO-TAL
옷과 같은 색 계통		60	50	39	36.2	46.3
옷과 반대 색 계통		5.3	8	4	3.7	5.2
옷보다 짙은 색 계통		14	15	17	15	15
옷보다 옅은 색 계통		11.6	14	18	12.5	14
무 응 답		9	13	22	32.5	

N=680

〈表 10〉 [설문 19] 소유하고 계신 모자의 색은?

선택항목	구분(%)	20代	30代	40代	50代	TO-TAL
빨강 계통		17.6	18	15.5	1.3	10.6
까망 계통		17.4	16.6	16.3	27	19.3
갈색 계통		19.4	15	23.2	23	20
녹색 계통		9.8	10	7.7	5.4	8.2
흰색		14.3	17.5	17.5	27	19
푸른색 계통		17.6	16.1	9.4	5.4	12.1
회색		3.9	6.1	9.4	10.8	7.5

N=752

〈表 11〉 [설문 20] 모자의 형 선택은 어느 방법으로 하십니까?

선택항목	구분(%)	20代	30代	40代	50代	TO-TAL
즉흥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25.3	25.5	35	11.2	24
남의 권유로		0.6			31.2	8
보통 많이 착용하는 형		17.3	31.5	29	20	24.4
입을 옷을 생각해서		49.6	28.5	19	15	28
무 응 답		7	13.5	17	22.5	

N=680

〈表 12〉 [설문 21] 어느 옷에 가장 많이 착용하십니까?

선택항목	구분(%)	수	%
원 피 스		88	12.9
투 피 스		81	11.9
스 랫 스		138	20
코 트		279	41
무 응 답		94	13.8

N=680

〈表 13〉 [설문 22] 어느 때 모자를 가장 많이 착용하십니까?

선택항목	구분(%)	20代	30代	40代	50代	TO-TAL
외출할 때		44.3	26	20	16.2	26.6
여행할 때		39.3	35.3	31	18.7	31
운동할 때		6.3	16	13	7.2	10.6
가정에서		4.3	14.5	14	26.2	14.7
무 응 답		5.6	8	12	31.2	

N=680

〈表 14〉 [설문 23] 모자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20代	30代	40代	50代	TO-TAL
선택항목					
꼭 필요하다	4.6	1.5	6	8.7	5.2
가끔 필요하다	67.3	72.5	57	56.3	63
별로 필요하지 않다	18.3	14.5	14	10	14.2
관심 없다	15.3	7.5	14	12.5	9.8
무응답	4	4	9	12.5	

N=680

〈表 15〉 [설문 24] 모자 착용이 자신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수	%
선택항목		
잘 어울린다	135	19.1
그저 그렇다	368	54.1
안 어울린다	59	8.6
모르겠다	69	10.2
무응답	49	7.3

N=680

〈表 16〉 [설문 25] 안 어울린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수	%
선택항목		
키가 작아서	61	15.4
얼굴이 커서	144	36.5
뚱뚱해서	24	6.1
개성이 없어서	166	42

N=395

〈表 17〉 [설문 27] 소유하고 계신 모자의 형은 어느 것입니까?

구분(%)	20代	30代	40代	50代	TO-TAL
모자형					
1	23.2	7.6	12.4	23.9	17
2	13	5.4	4.4	3.2	6.5
3	8.1	4.5	6.2	3.2	5.5
4	10.3	2.7	2.6		3.9
5	8.1	10.4	14.2	9.5	10.5
6	3.2	17.6	21.4	34.9	19
7	6.1	12.7	6.2	1.1	6.5
8	22.9	35.7	28.5	19.4	26.6
9	4.6	3.1	3.5	4.5	3.9

이상의 現在 우리 나라 女性의 帽子 着用에 대한 현황은 質問紙에서 얻은 答을 綜合 考察한 結果, 다음에 列擧한 結論과 問題點 및 提言등을 얻었다.

1. 우리 나라 女性은 帽子를 애용하고 있지 않으며 대체로 着用해본 적이 있는 정도로 帽子

모 자 형



着用은 一般化되어 있지 않다.

2. 帽子를 愛用하고 있지 않는 것과 같이 모자의 소유 갯수도 적다.

3. 材料로는 털실이 價格이 低廉하고 모양과 色을 多樣하게 디자인할 수 있으며 防寒用으로도 適合하여 가장 많이(39.7%) 利用되고 있다.

4. 着用季節은 겨울과 여름에 가장 많이 着用하며 防寒防暑用의 實用的인 面으로 많이 利用되고 있으나 20代가 비교적 服裝美를 위해(26.6%) 많이 착용하고 있다.

5. 色 選擇은 衣服과 同一色을 가장 많이 선택하며, 갈색(20%), 흑색(19.3%), 흰색(19%)의 順이고 全體적으로 볼 때 無彩色을 많이 所有하고 있다.

6. 코트(coat)에 모자를 많이 착용하고 있으며 帽子形 選擇은 입을 옷을 생각해서 選擇하고(28%), 보통 많이 착용하는 流行潮流에 따라 선택하는 傾向(24.4%)도 많다.

7. 旅行할 때(31%)와 外出時에(26.6%) 모자 착용을 많이 하고 있다.

8. 帽子의 필요성은 가끔 느끼고 있다(63%).

9. 帽子 着用이 自身에게 그저 그렇다고 自信感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안 어울린다는 女性은 그 理由를 個性이 없다고 생각하여(42%) 모자 착용에 대한 自信感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얼굴이 큰 이유도 높은 比率로 나타나고 있다.

10. 所有하고 있는 帽子形은 大體로 防寒防暑用에 適合한 形을 所有하고 있으며 머리 손질에 便利한 形은 50代가 많이(34.9%) 所有하고 있다.

11. 모자를 쉽게 착용하지 않는 女性은 그 理

由를 별 必要를 느끼지 않는다(37.4%)고 하고 있어, 모자에 대한 認識이 잘 되어 있지 못하다.

12. 性格別로 分類할 때 流行을 받아들이는 心理面에서 開放的인 性格이 保守的인 性格보다 더욱 積極的이며 必要性을 많이 느끼고 있다.

13. 身長이 작은 女性보다 큰 女性이 比較的 帽子着用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답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체형과 비슷한 일본만 하더라도 여름 뿐 아니라 계절에 관계없이 또 정장이나 캐주얼 웨어에도 모자를 즐겨 쓰는 모습을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들에게 어색하거나 부자유스러운 느낌이 없이 자연스러움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을 본다면 모자 착용이 반드시 신장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응답자의 심리적인 추측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14. 屋內에서 活動하는 趣味를 가진 女性보다 屋外에서 活動하는 趣味를 갖고 있는 女性이 帽子의 必要性을 더 느끼고 있으며 既婚女性보다 未婚女性이 모자 착용을 많이 하고 있다.

15. 生活程度가 높을수록 모자 착용을 많이 하고 있다.

IV. 결 론

이상과 같이 모자가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된 경로와 수용태도 그리고 현재 모자 착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찾아 보았다.

한복이 일상복에서 점차 줄어들면서 서구복식의 대중화와 더불어 착용된 모자는 시대적인 변동의 사회 경제 문화의 제반요인에 따라 형태와 착용상태에 많은 영향이 있었다.

우리나라에 西洋帽子가 들어온 時期는 단발령(1895)以後 西洋服飾의 導入과 함께 開化된 特殊層에서부터 始作되었다. 19세기 西洋에서는 帽子가 정장의 禮儀로 必須的인 것이었던 만큼 西洋服飾을 그대로 받아들여 着用했던 우리나라에서도 洋裝에 帽子는 반드시 着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帽子의 着用은 韓日合併以後 우리의 것을 찾으려는 愛國心으로 洋裝을 忌避하는 現狀으로 해서 잠시 주춤했다.

1930年代로 접어들어 女性運動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生活改善과 함께 洋裝의 普及이 一般化

되면서 帽子는 全盛期를 이루었다. 이것은 日本을 通해 西歐文明이 들어왔고 外國과의 往來가 頻繁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帽子形도 多様하여 크로쇠(Cloche), 부레톤(Breton), 티로리안(Tyrolia), 카프린(Cape-line), 카노체(Canotier), 토크(Toque) 등 여러 種類가 着用되었다.

1940年代의 二次大戰을 고비로 帽子着用은 衰退期를 맞이했고 50年代에는 6.25動亂을 겪는 民族受難期여서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다.

1960年代 이르러 産業經濟의 成長과 纖維産業의 發達이 多様な 衣裳素材를 提供했기 때문에 洋裝은 우리 衣生活에서 平常服으로의 位置를 차지하였고 매스컴미디어의 發達は 西歐의 流行을 迅速히 流入시켜 世界의 流行을 同時에 호흡할 수 있는 거리로 短縮시켰다. 이러한 時代에 特性과 함께 帽子는 레저 붐을 타고 우리의 衣生活에 점차 보급되기 시작했다. 1976년 파리 뉴 모드 컬렉션에서 모자는 다시 리바이벌의 流行을 타고 世界的인 旋風의 趨勢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帽子着用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

모자착용 실태조사 結果로 보아 우리 나라 女性은 傳統的이고 保守的인 思考觀念으로 인해 帽子의 必要性을 느끼면서도 周圍사람을 意識하는 消極的인 態度가 帽子着用을 쉽게 하지 못하게 하는 原因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 女性은 서구여성에 비해 얼굴의 크기가 身長에 비해 크고 둥근형이 많다. 이러한 體型은 브림(Brim)이 지나치게 클 때는 신장이 더욱 작아 보이고 또 브림이 작을 경우에는 얼굴이 커 보이는 傾向이 있다.

크로쇠(Cloche)形은 크라운(Crown)의 높이나 브림(Brim)폭의 加減으로 얼굴형에 따라 調節하기도 쉬우며 스포티 한 것과 드레시(dressy)한 用途에도 같이 使用될 수 있을 뿐 더러 겨울에는 털실로 製作하여 防寒用으로도 適合하여 色과 材料를 變化시켜 實用的이고 服裝美를 살리는데 適合하다. 모자 착용은 복식미의 아름다움과 방한방서용의 실용성을 결해 악세사리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現在 우리 나라에서 모자는 레저 붐을 타고 각종 스포츠 모자, 등산모자 등의 실용적인 가치와, 대기업체의 유

니폼에 착용하여 기능적인 효과와 기업체틀 상징하는 심볼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모자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적고 또한 전문 디자이너가 적었던 관계로 모자의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實用과 服裝美를 겸한 모자 디자인을 위해 좀더 모자에 관심을 가진 패션 디자이너가 輩出되어 現在의 製作狀態에서 벗어나 디자인의 本質인 大衆性, 普遍性을 前提로 한 우리 體型과 皮膚色이 考慮된 帽子가 디자인되어 普及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김운하, 「세상달라졌다. 服飾의 章」, 서울:조선일보, 1972. 4月.
2.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제 11집), 연세대학교, 1974.
3. 김혜기, 「의생활 40년의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가정, 제16집, 1969.
4. 유희경, 「한국여성복식의 연구」, 서울:이대출판부, 1972.
5. 이광린, 「한국 개화사 연구」, 서울:일조각, 1969.
6. 이규태, 「개화백경」, 四卷, 서울:新太陽社, 1969.
7. 李正玉, 「開化期の 韓國服飾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3.
8. 원영옥, 「우리나라 양장의 변천」, 서울:국민대학논문집, 1972.
9. 정충량, 「梨花八十年史」, 서울:梨花出版部, 1967.
10. 한국여성편찬위원회, 「한국여성사」, 이화여자대학교, 1972.
11. 車濬熙, 「일본 근대복식과, 우리 복식(1910~1940)」, 전주교육 대학논문집, 9집, 1974.
12. 홍병숙, 「우리나라 여성 의상의 유행에 관한 연구」, 서울:중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13. Boucher, P.,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London; Thames Hudson, 1967.
14. Brookman, Helen, L., *The Theory of fashion Design*,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5.
15. Contini, M., *Fashion*, London; Paul Hamyln Lid, 1967.
16. Garland, Madge., *The Changing form of Fash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0.
17. Horn, M.S.,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68.
18. 제국신문, 1905~1907.
19. 매일신보, 1910~1926.
20. 동아일보, 1927~1938, 1972. 4月 11日, 1965년 8月 14日.
21. 여성동아, 1967. 11(復刊)~1983. 10月.
22. 여성중앙, 1970. 11(創刊)~1983. 10月.
23. 여원, 1955. 9(創刊)~1970. 4(廢刊), 1981~1983.
24. 주부생활, 1970. 10月~1983. 10月.
25. 삼유년보, 1975. 3~1983.
26. 숙명五十年史, 1956.
27. 青木莫夫, 洋髮の歴史, 雄山閣, 昭和 46年.
28. 丹野郁, 總合服飾史事典, 雄山閣, 1982.
29. 엘레강스, 1978~1983. 10月.
30. 최경자, 패션 50년, 고려서적, 1981..
31. 南靜, *パリモードの200年(18세기 후반부터 2차대전까지)*, 문화출판국, 1980.